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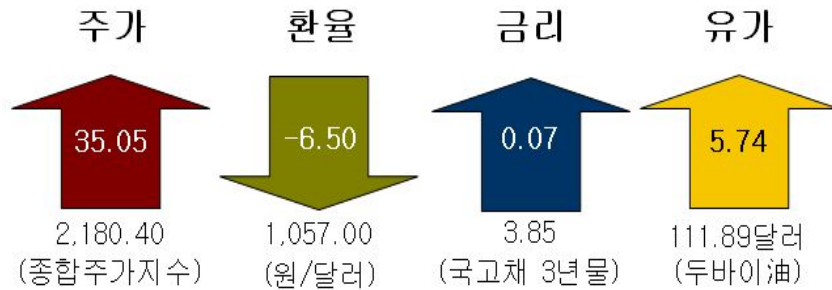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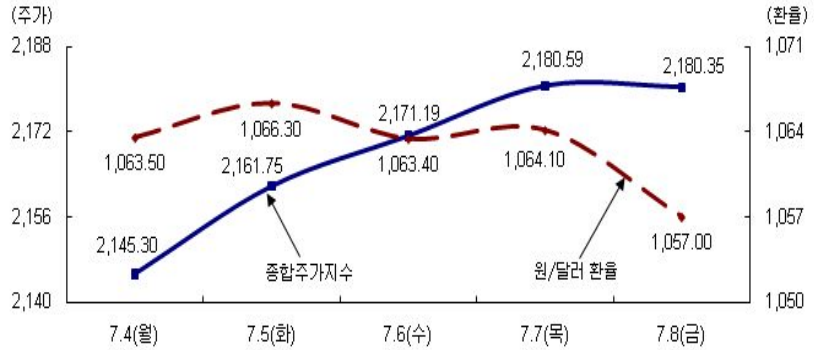
HRI Weekly Economic Review



[ '제 2의 카드사태' 가능성 낮다 ]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7.4~7.8)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제 2의 카드사태' 가능성 낮다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0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박 덕 배 전문연구위원 (2072-6216, dbpark@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제 2의 카드사태' 가능성 낮다

#### ■ '제 2의 카드사태' 논란

국내 신용카드 산업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영호조 속에 회원유치와 카드대출 경쟁 등 외형경쟁을 벌이고 있다. 2010년 모집인은 전년에 비해 1.6 만 명 증가한 5.1 만 명이고, 2010년 카드대출 규모도 전년에 비해 6.9% 증가한 24.9%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거주자의 해외 카드사용 증가에 따른 과소비와 경쟁 가열에 따라 카드사용이 점차 저신용자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와 더불어 '제 2의 카드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 ■ '제 2의 카드사태' 가능성 점검

현재의 여건을 카드사태 당시와 비교하면 첫째, 모집인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카드사태 당시와 비교하면 모집인 관리 및 모집 방법 등 질적인 차원에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카드사태 당시의 높은 카드대출 비중과 달리 현재는 신용판매 위주로 변하면서 카드자산과 이용액 구성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 셋째,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이 늘어나는 등 카드사용이 과소비와 가계부채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시기상조로 판단된다. 1인당으로 보면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은 축소 추세에 있으며, 여신전문기관의 가계대출이 2006년부터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이후 매우 낮아진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 넷째, 감독당국도 잇달아 카드시장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으로 자금조달 규제를 전면 정비하는 특단의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카드산업은 각종 수수료 인하 압력과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당경쟁이 지속될 경우 저신용자시장으로의 진입 확대에 의해 신용리스크가 증가하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대손율이 급증하면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에는 유의해야 한다. 1990년대 미국의 카드산업 사례를 보아 현재 호조를 보이고 있는 국내 카드산업의 외형 경쟁이 자칫 카드사를 어려움에 빠트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

#### ■ 시사점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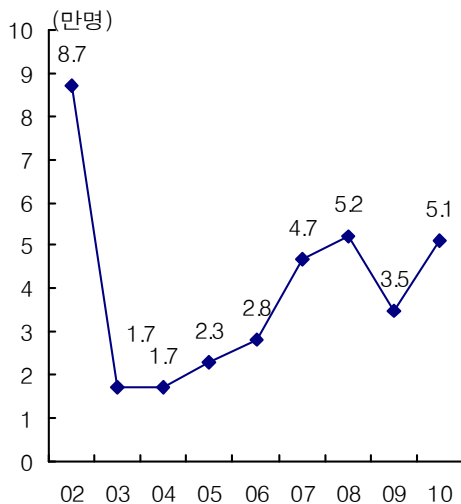
'제 2의 카드사태'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 카드산업은 외형 경쟁보다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먼저 카드사의 경영은 안정과 내실에 중점을 두면서 과학적이면서 합리적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통계에 기반한 분석과 고객차별화와 더불어 리스크에 기초한 적절한 가격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맹점 수수료 위주의 수익구조를 결제 및 고령화관련 새로운 수익모델로 다양화하고 폭넓은 분야에서의 아웃소싱 등 비용절감 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 1. '제 2의 카드사태' 논란

○ 최근 카드사간 외형경쟁 심화 속에 거주자 해외카드 사용 증가, 카드대출 확대 등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제 2의 카드사태' 논란이 초래됨

- 2009년부터 은행이 겸영하던 카드업무가 속속 독립 전업사로 전환되고, 통신 회사의 카드업 진출이 본격화
  - 2009년 하나카드(현재 하나SK카드), 2011년 KB국민카드 등 은행의 카드겸 영업무가 분사하였고, 여타 은행들도 카드업무의 분사를 계획
  - SK의 카드업 진출, 2011년 KT의 BC카드 인수 등 통신회사의 카드업 진출
- 모집인이 증가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으로 회원 유치경쟁이 심화)
  - 2010년 말 현재 모집인 수는 5.1만 명으로 전년 말 대비 1.6만 명 증가
  - 2011년 3월말 현재 유실적 신용카드(무실적 휴면카드 제외)는 8,733만매로써 2009년 말 (7,637만매) 대비 14.4% 증가
- 카드론 중심으로 대출경쟁도 심화되어 2010년 카드대출 이용규모가 증가
  - 과거 카드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이 전년 대비 19%(잔액기준) 증가(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6.3%를 크게 초과)

< 모집인 수 추이 >



자료 :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 연도별 카드대출 이용실적 >

(단위: 조원)

	'07	'08	'09	'10
카드대출	101.8	107.9	99.4	106.2
(카드론)	16.0	19.2	18.0	24.9
(현금서비스)	85.8	88.7	81.4	81.3

1) 부가서비스 : 포인트, 마일리지, 각종 할인혜택 등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편의

- 최근 거주자의 해외에서의 카드사용 증가에 따른 과소비 문제와 더불어 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의 우려감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 금융위기 당시 큰 폭으로 줄어든 거주자 카드사용이 2010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금융위기 수준을 상회
  - 2011년 1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늘어(전분기대비 4.8%)나면서 20억달러로 전분기(19.5억달러)에 비해 2.5% 증가
  - 과거 카드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이 전년 대비 19%\*(잔액기준) 증가(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6.3%를 크게 초과)

## 2. '제 2의 카드사태' 가능성 점검

○ (카드사태 당시와 비교) 과거 카드사태의 재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의 여건은 카드사태 당시 보다 크게 개선됨

- 최근 모집인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2002년 말 당시와 비교하면 모집인 관리 및 모집 방법 등 질적인 차원에서 건전성을 유지
  - 카드 모집인 수뿐만 아니라 등록도 여신금융협회에서 선정하여 엄격 관리
  - 카드사태 당시와 같은 경품을 제공을 하지 못하고, 길거리(방문) 모집 금지

### < 카드사태 시기와 최근의 모집인 관련 비교 >

	카드사태 직전('02말)	현재('10말)
모집인 수	87,733명('02년말)	51,249명
모집인 등록	- 카드사별 개별 계약 - 카드사별 중복 계약 가능	- 여신금융협회 등록 - 카드사별 중복 계약 불가
모집 방법	- 경품(현금)제공 제한 없음 - 길거리 및 방문모집 가능	- 연회비 10%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 길거리 모집 금지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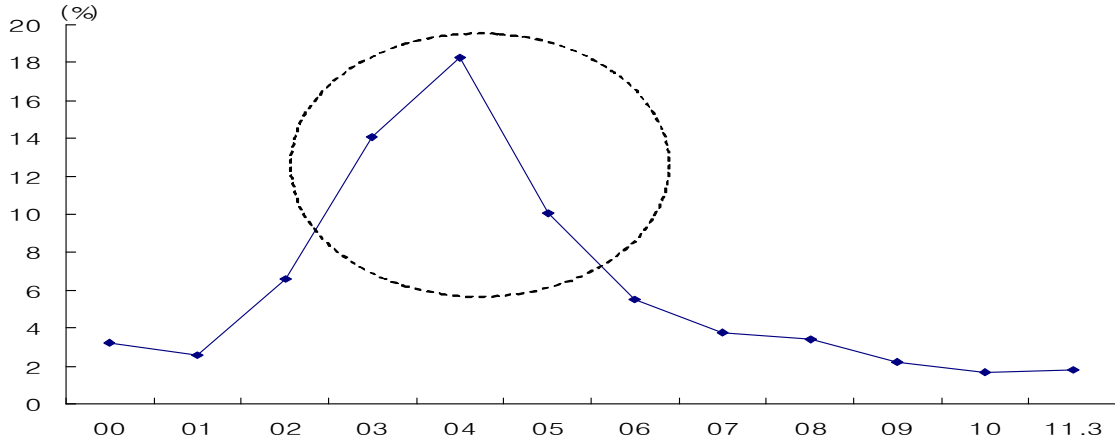
### < 전업사 기준 카드사태 당시와의 경영상황 비교 >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비율	카드대출	연체율	차입금의존도	부채비율
'03년	△7.7조원	△3.3%	276.6조원(연간)	28.3%	96.2%	1,594%('04)
'10년	2.7조원	28.5%	105.3조원(연간)	1.7%	57.8%	261%

주: 1) 카드대출은 전업사와 경영은행의 합한 것임  
2) 2003년 부채비율은 2004년 수치임

- 신용카드사(결영은행 포함)의 재무상태도 카드사태 당시와 비교하여 양호
  - 2003년 이후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 리스크 관리강화, 신용카드 이용의 보편화 등에 따라 수익성·건전성·자금조달 여건이 모두 양호한 상태
  - 2011년 1분기 연체율 소폭 상승(1.68%→1.77%)은 아직 우려할 상황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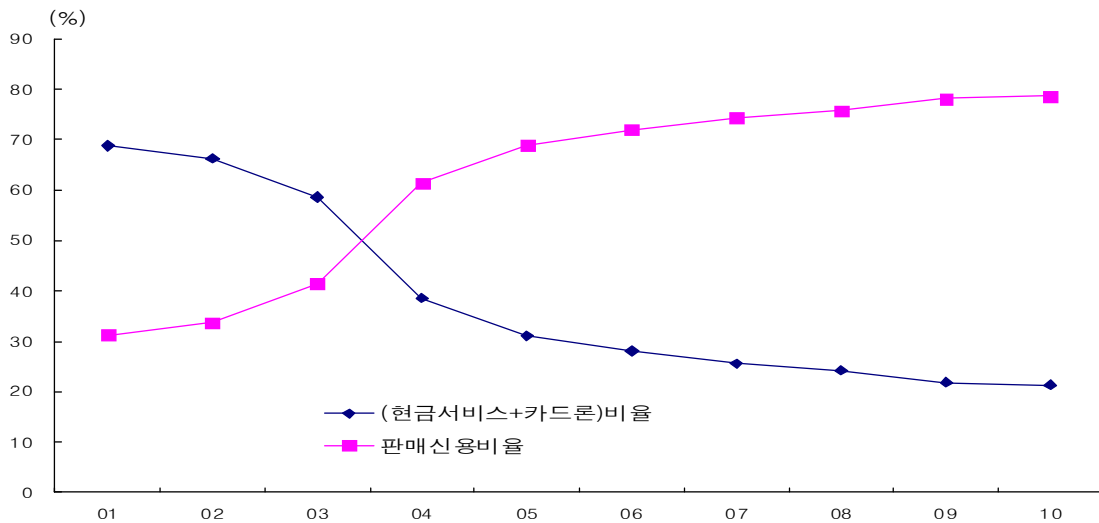
< 전업사 기준 연체율 추이 >



자료 : 금융감독원

- 카드사태 이후 총이용 금액 중 카드대출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반면 판매신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카드 이용의 건전성이 지속
  - 총 이용금액 중 판매신용 비중 2001년 31.2%에서 2010년 78.7%로 상승
  -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비중 2001년 68.8%에서 2010년 21.3%로 하락

< 신용카드 이용 구성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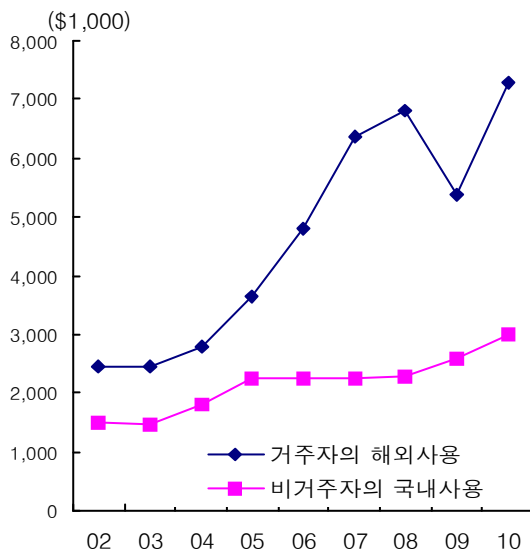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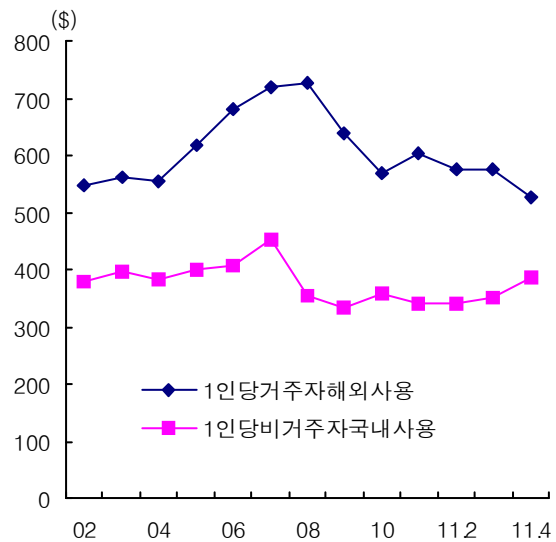
○ (카드 해외사용 확대와 가계부채 문제) 최근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이 늘어나는 등 카드사용이 과소비와 가계부채의 원인이라고 지목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됨

- 최근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이 늘어나 과소비 조장의 원인이며, 카드사용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라는 우려감도 시기상조로 판단
  - 1인당으로 보면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은 축소추세에 있으며,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카드사용이 1인당으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
  - 여신전문기관의 가계대출이 2006년부터 소폭 증가세이나,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이후 매우 낮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음<sup>2)</sup>

< 거주자 카드 해외사용 추이 >



< 1인당 거주자 카드 해외사용과 비거주자 국내사용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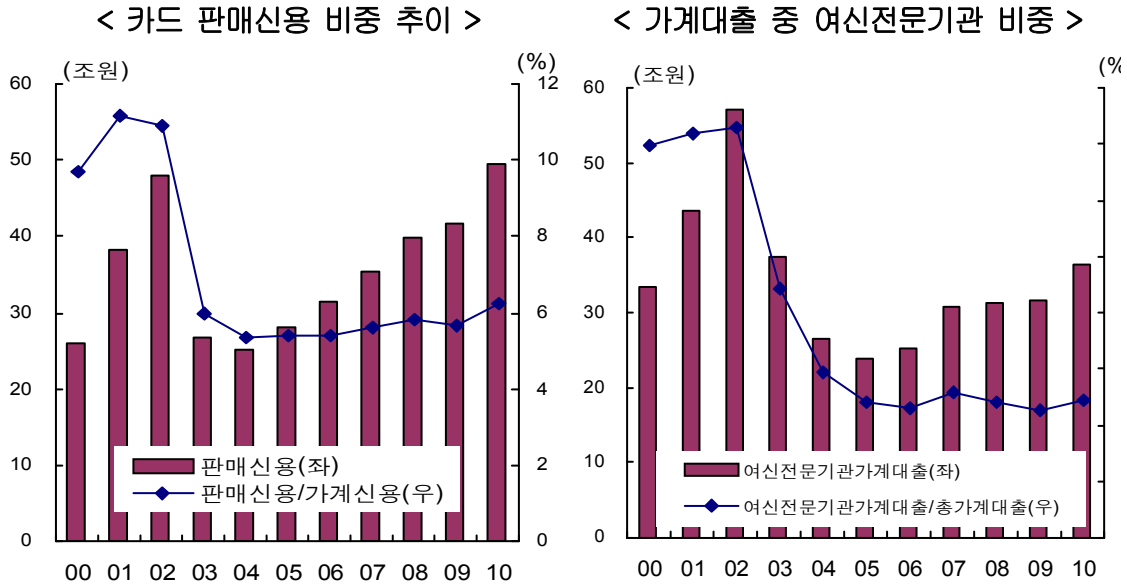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한편 신용카드 판매신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로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신용카드 이용이 늘어난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2006년 이후 판매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급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이용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데 기인
  - 최근 가계신용 중에서 판매신용 비중이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카드사태 이후 매우 낮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음

2) 2010년 들어 여신전문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규제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카드대출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

- 카드대출 등 여신전문기관의 가계대출이 2006년부터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카드사태 이후 매우 낮아진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음



자료 : 한국은행

주 : 가계신용 = 판매신용 + 가계대출(은행, 보험, 여신전문기관(카드, 캐피탈 등) 기타 등)

○ (건전성 유지 감독) 카드사태 당시와는 상황이 다른 가운데 감독당국도 건전 경영경쟁을 유도하고,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

- 카드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년 들어서만 3번의 신용카드 관련 대책을 마련
  - 2011년 2월 '카드사 건전 경영경쟁 유도 방안', 3월 '카드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
  - 6월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으로 자금조달 규제를 전면 정비 등의 대책을 마련
- 여기에다가 6월말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종합대책'에서도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
  - 여전사 대손충당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체크카드 활성화를 통해 불필요한 신용이용을 억제하는 계획 등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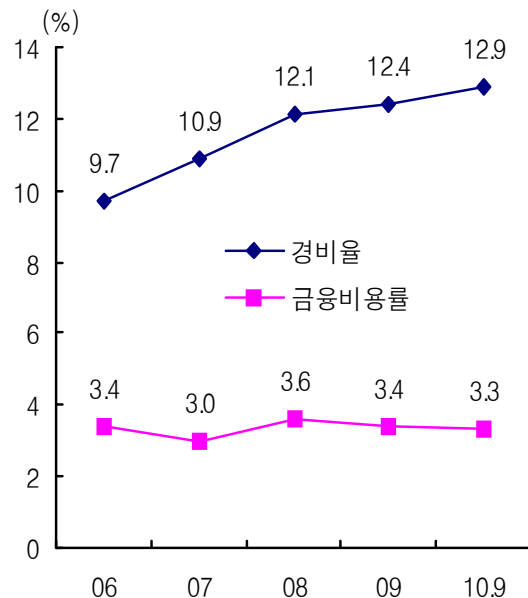
○ 그러나 외형 경쟁이 지속될 경우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음

- 모집인 및 카드발급 증가 등 경비 증가,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에 따른 마케팅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킴
  - 부가서비스 확대에 따른 마케팅 비용(포인트·마일리지 비용, 할인서비스, 광고선전비, 모집인 비용 등) 상승 등 고비용 영업구조의 고착화 우려<sup>3)</sup>
  - 경비율도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0년 4분기부터 금리 상승기조가 본격화된 것을 반영하면 금융비용률도 상승 추세 추정
- 뿐만 아니라 현재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연체율이 가계부채 증가, 저신용자의 카드사용 증가 등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 저신용자(KCB 7등급 이하)에 대한 발급건수가 2009년 64만 건에서 2010년 100만 건으로 증가
  - 2010년 카드 연체율이 1%대로 낮아졌지만 금융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저신용자의 연체 가능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마케팅 비용률 추이 >

	'06	'07	'08	'09	'10.1~9
카드총수익 (a, 조원)	12.5	13.5	15.6	16.1	12.6
마케팅비용 (b, 조원)	1.8	2.6	3.1	3.3	3.1
마케팅비용률 (b/a, %)	14.8	19.3	20.2	20.6	24.5

< 카드사 비용률 추이 >



자료 : 금융감독원,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주 : 비용률은 총채권평잔 대비 비용(나이스신용평가정보)

3) 특히, 과당경쟁이 지속될 경우, 회원 모집질서 문란, 과장광고,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

- 현재 국내 카드산업은 각종 수수료 인하압력과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에 직면한데다 과다경쟁이 지속될 경우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 국내 카드사 수익이 수수료에 절대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점 수수료 및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비롯한 제반 가격인하 압력이 거세지고 있음
  - 카드사 자금조달이 차입과 시장성 수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금리 상승 추세로 카드사의 조달비용이 상승하고, 금융시장 경색 시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여건변화에 매우 취약한 상태
  - 카드사의 저신용자시장 진입 확대로 신용리스크가 증대하고, 가계부채 및 개인파산 증가에 따른 카드사 대손율이 급증하면서 결국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음

○ 외형경쟁 심화가 1990년대 미국이 경험한 ‘카드산업의 위기’와 같은 어려움을 배제할 수 없음

- 카드사간 외형경쟁이 현재 경영 호조를 보이고 있는 카드산업이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현재의 외형경쟁 상황이 지속되면 1990년대 미국이 겪었던 카드산업 위기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 1980년대 성장을 지속해 온 미국 카드산업이 1990년대 경기호조에도 불구하고 경쟁 심화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결국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sup>4)</sup>
  - 1990년대 포화상태에 도달한 미국 카드시장에서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카드사간의 공격적인 DM영업 확대와 마케팅경쟁을 펼치면서 영업비용이 급증
  - 카드사의 저신용자시장 진입 확대로 신용리스크가 증대하고, 과소비 등에 의한 가계부채 및 개인파산 증가에 따른 카드사 대손율이 급증
  - 1990년대 중반 이후 퇴출사업자 증가, 중소형카드사의 카드자산 매각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본격화

4) 1990년대 후반 이후 리스크관리 강화, 저비용조달 구조, 틈새시장 공략 등 경쟁력을 강화한 미국 카드산업은 미국 소비자금융산업의 핵심으로 부상

### 3. 시사점 및 과제

○ 현재는 2003년 상황과 달라 '제 2의 카드사태 가능성이 낮고, 카드 사용 증가가 가계부채의 원인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임

- 카드사태 당시보다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제 2의 카드사태' 가능성은 낮음
  - 카드사태 이후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 리스크 관리강화, 신용카드 이용 보편화 등으로 수익성·건전성·자금조달 여건 등이 양호
- 최근의 카드사용 증가가 반드시 과소비와 가계부채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기도 시기상조
  - 해외카드 사용 증가와 판매신용 증가도 과소비도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카드 사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
  - 뿐만 아니라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가 카드에서 기인하지 않고 있어 카드사용 증가가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도 근거가 약함

○ 그러나, 과거 미국의 사례를 보아 현재는 외형경쟁 보다 내실 경영에 초점을 맞추면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카드업계의 경영은 내수시장에서의 외형 경쟁보다는 안정과 내실에 중점을 두면서 고객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강화할 필요
  - 최근 제 2 금융권을 통한 가계의 자금수요 증가와 카드사들의 현금대출 확대 전략이 맞물려 수익성 저하와 자산건전성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
  - 저신용자 대상의 공격적 마케팅보다는 기존 고객의 유지와 메인 고객화 등으로 수익성, 건전성, 유동성 중심의 보수적 전략이 필요함
- 통계적 접근에 기초한 적절한 리스크관리와 가격전략을 추구
  - 저신용 고객에 대한 금리 조정과 이용한도 조정을 통하여 리스크를 관리
  - 특정 고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전략을 추구

- 가맹점 수수료 위주의 수익구조를 다양화하고 비용절감 방안을 모색
  - 리볼빙카드 활성화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와 결제관련 新 수익모델 창출<sup>5)</sup>
  - 비용절감을 위하여 회원자격 심사 및 발급 승인, 이용한도 부여 및 변경, 신용카드 이용관련 대금 결제, 거래승인 등 분야에 대한 아웃소싱
  - 모집 및 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휴면카드 축소 유도
  
- 카드관련 신사업 발굴 노력과 고령화관련 카드상품 개발 노력
  - 모바일 시장 확대와 관련한 신규사업 확대와 보험대리 및 여행알선 등 부대 업무를 통한 업무영역 확대
  -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라이프사이클 변화에 맞춰진 新신용카드상품 개발 노력

박덕배 전문연구위원 (2072-6216, dbpark@hri.co.kr)

---

5) 리볼빙(revolving)카드란 카드 사용대금이 많이 부담이 되고 한꺼번에 결제하기 곤란한 경우, 자신이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만큼 조절하여 결제할 수 있는 맞춤형 결제카드임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9년					2010					2011년 연간(E)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6	-4.9	-0.7	1.6	5.0	2.9	3.7	1.7	2.6	3.2	2.8
유로 지역	-4.1	-2.5	-0.1	0.4	0.2	1.8	0.4	1.0	0.4	0.3	1.6
일본	-6.3	-20.1	10.8	-1.9	7.3	3.9	6.0	2.1	3.3	-1.1	1.4
중국	8.7	6.2	7.9	9.1	10.7	10.3	11.9	11.1	10.6	9.8	9.6
한국	0.2	-4.3	-2.2	1.0	6.0	6.2	8.5	7.5	4.4	4.7	4.3

주: 1) 2011년 전망치(E)는 IMF 2011년 1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7월4일	7월8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9	3.30	3.13	3.03	-0.10%p
	엔/달러	92.93	88.43	81.19	80.85	81.25	0.40¥
	달러/유로	1.4413	1.2238	1.3350	1.4547	1.4361	-0.0186\$
	다우존스지수(p)	10,428	9,774	11,578	12,583	12,657	74p
	닛케이지수(p)	10,655	9,383	10,229	9,965	10,138	173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6	3.38	3.78	3.85	0.07%p
	원/달러(원)	1,164.5	1,222.2	1,134.8	1,063.5	1,057.0	-6.5원
	코스피지수(p)	1,682.8	1,698.6	2,051.0	2,145.3	2,180.4	35.1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7월4일	7월8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79.35	75.77	91.40	94.77	96.23	1.46\$
	Dubai	78.06	73.14	88.80	106.15	111.89	5.74\$
CRB선물지수	283.38	258.52	332.80	336.71	343.55	6.84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